

바울의 Πίστις 이해: 신뢰, 믿음, 혹은 순종? — 모건(T. Morgan)의 Πίστις 이해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이승현*

1. 들어가는 말

바울에 관한 현대적 논의들 중, 최근 학자들에게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표현은 πίστι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일 것이다. ‘예수(그리스도)-믿음’으로 간략하게 해석되는 이 그리스어 표현은 예수가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가지는 소유격의 관계를 주격으로 볼지, 혹은 목적격으로 볼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되곤 했다.¹⁾ 전통적으로, 학자들은 이 그리스어 표현을 예수를 믿음의 목적격 대상으로 보고 예수를 향한 성도들의 믿음을 표현하는 목적격 소유격(objective genitive)으로 간주했다. 이에 반하여, 헤이즈(R. Hays)를 필두로 하는 북미권의 학자들은 이 표현을 예수 자신의 믿음, 즉 하나님을 향한 예수의 신실함을 의미하는 주격 소유격(subjective genitive)으로 이해했다. 그들은 과거 소수 의견으로 간주되었던 이 견해를 ‘그리스도 중심적(Christocentric) 표현’이라고 부르며, 목적격 소유격 견해보다 더 선호했다.²⁾ 그들은 전통적인 목적격 소유격의 견해를, 비록 이 전통적 견해에

* Harvard University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호서대학교 신약학 부교수. shlee@hoseo.edu. 이 논문은 2020년도 호서대학교의 재원으로 학술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200831).

1) 이 두 견해들에 대한 가장 전형적인 예들로 던(J. Dunn)과 헤이즈(R. Hays)를 들 수 있다. 참조, D. M. Hay and E. E. Johnson, *Pauline Theology*, vol. 4, SBL Symposium Series 4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7), 35-92.

2) 참조, B. Schliesser, “‘Exegetical Amnesia’ and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The ‘Faith of Christ’ in Nineteenth-Century Pauline Scholarship”, *The Journal of Theological Studies* 66:1 (2015),

서 인간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 중심적 (anthropocentric) 견해라고 부정적으로 칭하면서, 바울의 그리스도 중심적 구원신학과 함께 갈 수 없는 것으로 간주했다. 현재까지도, 이 두 견해들은 그들의 해석학적 추종자들로 구성된 튼튼한 영역을 소유한 채, 팽팽한 긴장 속에서 상호 대치하고 있다.³⁾ 물론, 일부 바울 학자들은 이 같은 목적격 소유격과 주격 소유격의 이분법이 지나치게 단순하고 엄격한 구분임을 비판하면서, 이 그리스어 표현에 대한 제3의 해석학적 대안들을 제시했다.⁴⁾ 그들은 이 표현에 대한 단순한 문법적 분석을 넘어서, 이 표현이 등장하는 바울 서신서 문맥 전체를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학자들은 바울 당시 πίστις의 의미장(semantic field)이 단순히 ‘믿음’ 혹은 ‘신실함’이라는 한 가지 고착된 의미를 넘어서, 여러 가지 유사한 그러나 다양한 의미들을 함께 동시에 표현할 수 있음에 주목했다. 그중에서도, 고전학자 모건은 바울이 πίστις를 그 당시 일반적 용례를 중심으로 이해했음을 강조했다. 모건은 바울 당시 그리스-로마 사회에서 πίστις가 소유했던 주요 의미인 ‘신실함에 바탕을 둔 관계적 측면에서의 신뢰’를 중심으로 바울의 πίστις 개념 분석을 시도했다.⁵⁾ 물론, 모건의 견해에 반응하면서, 혹은 모건과 독립적으로, 최근 많은 바울 학자들은 바울의 πίστις 이해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논의들을 생산해 내었다.⁶⁾

61-89.

- 3) 이 두 견해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라. M. C. Easter, “The Pistic Christou Debate: Main Arguments and Responses in Summary”, *Currents in Biblical Research* 9:1 (2010), 33-47.
- 4) 참조, B. Schliesser, “‘Christ-Faith’ as an Eschatological Event (Galatians 3.23-26): A ‘Third View’ on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38:3 (2016), 277-300; Jeanette Hagen Pifer, *Faith as Participation: An Exegetical Study of Some Key Pauline Texts*, Wissenschaftliche Untersuchungen Zum Neuen Testament 2/486 (Tübingen: Mohr Siebeck, 2019); P. M. Sprinkle,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as an Eschatological Event”, M. F. Bird and P. M. Sprinkle, eds., *The Faith of Jesus Christ: Exegetical,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2010), 165-184.
- 5) T. Morgan, *Roman Faith and Christian Faith : Pistic and Fides in the Early Roman Empire and Early Churches*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 6) 참조, J. Lieu, “Faith and the Fourth Gospel: A Conversation with Teresa Morgan”,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40:3 (2018), 289-298; L. Alexander, “A Map of Understanding: The Riskiness of Trust in the World of the Early Christians”,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40:3 (2018), 276-288; P. Oakes, “Pistic as Relational Way of Life in Galatians”,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40:3 (2018), 255-275; D. Konstan, “Trusting in Jesus”,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40:3 (2018), 247-254; D. G. Horrell, “Reconfiguring Early Christian ‘Faith’”, *Ecclesiology* 12:3 (2016), 354-362; N. K. Gupta, *Paul and the Language of Faith*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20);

이에, 본 논문에서 우리는 모건의 *πίστις* 분석을 중심으로, 그리고 최근 바울 학자들의 *πίστις* 논의와 대화하면서, 바울의 ‘삼중적’ *πίστις* 이해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⁷⁾ 우리는, 첫 번째, 바울에게 *πίστις*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성도들 간의 신실한 관계의 토대를 이루는 신실함에 바탕을 둔 신뢰라는 모건의 견해에 다소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바울에게 하나님과 인간 간의 신뢰 관계의 토대는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룬 특별한 구원의 사건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이에 바울의 *πίστις*는 특별한 예수 복음에 대한 인간의 인식론적 동의와 긍정적 수용으로서의 믿음의 반응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πίστις*가 표현하는 하나님의 구원 제시에 대한 성도들의 인식론적 동의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지속적 신뢰의 표현으로서의 순종을 요구한다(비교, 롬 1:5; 16:26; 고후 7:15). 바울에게 *πίστις*는 단순히 회심의 때에 표현되는 인식론적 변화에 따른 순간적 결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론적 실체로 살아가면서 표현해야 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의미한다(비교, 갈 2:18-20; 5:6). 결론적으로, 바울에게 *πίστις*는 단순히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그 자체를 의미하는’ 예수를 통해서 제공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의 반응으로 수용하여 의롭다고 선포되고, 존재론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방편이다. 그러나 동시에, *πίστις*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현재 품고 있는 신뢰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서의 지속적 순종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을 해석할 때, 그 안에 다양한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는 역동적 개념인 *πίστις*를 단순히 한 가지 방식으로만 일관되게 해석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대신, 그 단어가 발생하는 문맥적 상황에 따라, 그 단어를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기 원하는 바를 해석학적으로 엄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P. R. Trebilco, *The Early Christians in Ephesus from Paul to Ignatius*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 Co., 2007); B. Schliesser, “Faith in Early Christianity”, Jörg Frey, B. Schliesser, and Nadine Kessler, eds., *Glaube: Das Verständnis Des Glaubens Im Frühen Christentum und in Seiner Jüdischen und Hellenistisch-Römischen Umwelt* (Tübingen: Mohr Siebeck, 2017), 3-50; M. F. Bird and P. M. Sprinkle, *The Faith of Jesus Christ: Exegetical,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2010).

7) 이 단어의 다중성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이미 강조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굽타(N. K. Gupta)가 저자와 유사한 견해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을 이미 작성한 후에 그의 저서를 접하였고, 또 모건(T. Morgan)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본 논문의 특성상 굽타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수행하지 않을 것이다.

2. Πίστις — 신실한 관계의 토대로서의 신뢰

고전학자 모건은 자신의 πίστις 분석을, πίστις가 ‘어떻게 예수의 처음 제자들에게 그토록 중요한 개념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⁸⁾ 모건은 바울을 포함한 신약성경 저자들의 πίστις 이해는 당시 이 단어가 사회적으로 통용되던 일반적 용례의 범위 안에서였을 것이라고 전제한다. 왜냐하면 예수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내·외부인들과 효과적으로 대화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처한 사회적 환경에서 통용되던 일반적 용례를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표현해야 했기 때문이다. 모건은 바울 당시 그리스-로마 사회에서 πίστις는 현대적 의미에서의 명제적 믿음(propositional faith)과 달리, 감정, 인식, 행동, 그리고 관계성과 연관된 다양한 의미들을 포함한 복잡한 개념이라고 주장한다.⁹⁾ 그리고 모건은 인간들 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들과 신들과의 관계의 가장 근본적 덕목으로 ‘상호 간의 신실함에 바탕을 둔 신뢰’를 든다. 이 관계적 측면에서의 신뢰는 그리스어 단어 πίστις와 라틴어 단어 *fides*를 통해서 표현되었다. 만약 πίστις가 근본적으로 인간들과 신들로 구성된 사회적 관계망들을 떠받치는 서로를 향한 신뢰를 의미한다면,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상호성이라는 특징을 띠게 된다. 그리고 이 상호성 속에서 사회적 관계망을 떠받치는 구성원들 간의 신뢰는 양방향으로 향한다. 물론, 그들 상호 간의 신뢰는 상대방이 신뢰할 만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따라서 인간이 신을 향하여 πίστις를 가진다는 것은 그 신이 신뢰할 만한 존재라는 전제하에서, 그 신과의 새로운 신뢰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¹⁰⁾ 그러나 동시에, 신뢰는 인간이 신을 향하여 가져야 할, 포기할 수 없는 의무 사항으로서, 자신이 경배하는 신을 향한 지속적 충성과 헌신을 통하여 계속해서 성장해야 한다.

모건은 πίστις에 관한 이러한 자신의 사회 언어학적 관찰이 구약의 칠십 인역에서도 잘 발견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가장 신뢰할 만한 분으로서 이스라엘로부터 지속적 충성을 담은 신뢰를 요구하는 분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으로서의 믿음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 순간에 존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표현해야 할 최고의 의무요

8) T. Morgan, *Roman Faith and Christian Faith: Pistis and Fides in the Early Roman Empire and Early Churches*, 2.

9) *Ibid.*, 121.

10) *Ibid.*, 173.

가치이다.¹¹⁾ 모건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보인 그의 신뢰의 표현으로서의 믿음은 그와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적 관계를 시작하고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 요소이다.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육체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손을 가지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하나님에 대한 ‘위험한 신뢰’(risky trust)를 의미한다.¹²⁾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와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 형성이라는 한순간의 결정을 규정짓는 핵심 요소인 동시에, 그와 하나님과의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가 계속해서 보여 주어야 하는 순종과 충성을 포함한다.¹³⁾ 반면에, 출애굽 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자신이 과거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에 대한 신실한 신뢰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이 모세를 그들에게 구원자로 보냈음을 알려 준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언약의 대상이 될 것을 요청하는 동시에, 하나님도 그들에게 자신이 신뢰할 만한 언약의 대상이 됨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며 증명하려 한다.

모건은 바울을 포함한 신약성경의 저자들도 그들의 πίστις 이해를 그리스-로마 사회의 일반적 용례와 구약의 종교적 이해에 바탕을 두었을 것이라고 전제한다. 이 전제에 따르면, 바울에게 πίστις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성도들의 신뢰’를 의미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는 그가 진실로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과거의 증거와 현재의 새로운 서약을 요구한다.¹⁴⁾ 바울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거는 구약성경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간섭과 미래의 구원에 대한 그의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온다. 물론, 바울에게 구약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롬 1:1-4; 갈 3:22-23).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희생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전 1:4). 그리고 나아가, 예수 사건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복음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로 성도들을 초청한다(1:9).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πίστις 이해에 관한 특별한 발전 하나를 더 관찰하게 된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신뢰 관계 속에 예수가 새롭게 등장하여, 그 관계의 핵심 연결 고리로 기능한다는 점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바울의

11) Ibid., 210.

12) Ibid., 181.

13) Ibid., 211.

14) Ibid., 181, 187.

서신서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특별히, 바울에게 하나님께 신실하심에 대한 가장 명백한 증거인 예수 복음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죽어 있는 우상들을 버리고, 살아 있는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 속으로 들어오게 한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아들의 재림을 기다리게 한다(비교, 살전 1:8-10). 선포된 예수 복음을 듣고 그 선포에 긍정적 신뢰로 반응하여 예수와 연합하게 된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고 성도들 간에 존재하는 삼중적 신뢰 관계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신뢰를 표현하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다(비교, 갈 1:13, 23). 그러므로 바울에게 πίστις의 핵심 기능은 하나님과 성도들의 신뢰 관계 회복에 있고, 이 관계 회복을 가능하게 한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신실함의 증거로서의 예수의 등장이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관계적 신뢰를 의미하는 πίστις는 현재의 고난을 이기고 견고하게 서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는 성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고전 1:8; 15:2; 16:13; 살전 5:23).

모건은 바울 당시 πίστις 개념의 본질이 ‘하나님과 인간의 신뢰에 바탕을 둔 관계 회복’이라는 주장을 근거로 πίστι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를 이해하려 한다. 바울은 예수가 성도들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그들을 악한 세대로부터 구원한 사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다고 선포한다(갈 1:4; 롬 5:1-11).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의 희생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의 순종을 의미하므로(빌 2:8; 롬 5:19), 예수는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신실함에 근거한 신뢰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입증했다고 볼 수 있다.¹⁵⁾ 물론, 예수가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게 순종한 배경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그의 신뢰가 있었고, 예수의 신뢰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의 증거로 하나님은 죽은 예수를 부활시켜 우주의 주로 높여 주었다(빌 2:9-11).¹⁶⁾ 그러므로 예수의 희생의 죽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뢰의 증거로, 그리고 예수의 부활은 예수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의 증거로 기능한다. 그리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할 만한 신실함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을 통해서 증명되므로, 인류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 희생의 죽음을 감내한 예수도 인류를 향한 자신의 신실함을 증

15) 참조, R. B. Hays, *The Moral Vision of the New Testament: Community, Cross, New Creation: A Contemporary Introduction to New Testament Ethics* (San Francisco: HarperSanFrancisco, 1996), 51-52.

16) 참조, 이승현, “빌립보서 2:6-11을 통해서 본 바울의 기록론적 구약 사용”, 『신약논단』 26 (2019), 215-256.

명했다. 따라서 인류가 선포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자신들의 πίστις를 행사할 때, 그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한 예수를 향한 신뢰를, 그리고 동시에, 예수를 통해서 자신의 신실함을 증거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함께 표현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그리스어 표현 πίστι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는 예수를 향한 성도들의 신뢰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신뢰를 표현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뢰를 바탕으로 인류를 향한 자신의 신실함을 표현한 예수의 신실함도 함께 표현한다. 결국, 모건의 관점에서 이 그리스어 표현은 하나님, 예수, 그리고 성도들 간에 존재하는 삼중적 신뢰 관계에 대한 바울의 신학적 강조를 그 안에 담고 있다.

물론, 바울에게 예수가 이 삼중적 신뢰 관계의 중심축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¹⁷⁾ 과거,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신뢰 관계의 표현이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에 반하여, 바울에게는 율법의 완성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신뢰 관계의 중심축으로 기능한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예수 간의 관계망의 가장 결정적 특징은 신뢰로 표현되는 πίστις이다. 그러므로 모건의 관점에서 볼 때, 바울이 성도들의 칭의의 근거로서 πίστις를 언급할 때, 그 πίστις가 누구의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이유는 그 πίστις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고 인간의 πίστις를 함께 동시에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결국, 모건의 관점에서, 바울 학자들의 논쟁의 중심에 섰던 그리스어 표현 πίστι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가 지니고 있는 해석학적 모호함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서 복잡하게 역사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고 인류가 표현해야 할 신뢰 관계의 근거로서의 πίστις의 역동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창조해낸 ‘의도적 모호함’이다.¹⁸⁾

그리스어 단어 πίστις가 소유한 관계적 측면에서의 신뢰의 강조성을 하나님의 구원사에 관련된 주체들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고 인류와 연관하여 상세하게 설명한 모건의 시도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바울의 πίστις 이해에 대한 모건의 견해는 몇 가지 점에서 수정과 보완을 필요로 한다. 첫 번째, 모건은 바울이 동시대의 πίστις에 대한 일반적 용례가 지닌 의미장을 자신의 πίστις 이해에 그대로 수용한 채, 그 어떤 새로운 내용도 이 단어에 더하지 않았다고 전제한다.¹⁹⁾ 왜냐하면, 만약 바울을 포함한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 단어에 어떤 급진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면, 외부

17) T. Morgan, *Roman Faith and Christian Faith: Pistis and Fides in the Early Roman Empire and Early Churches*, 272-273.

18) *Ibid.*, 274, 286-287.

19) *Ibid.*, 4.

인들과의 대화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종교 운동은 그 시작부터 기존 사회, 혹은 종교에 대한 개혁 내지는 대안적 사상 체계를 제시하고자 하므로, 그 새로운 종교 운동이 특정 핵심 용어들에 특별하게 중요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모건이 인정하고 있듯이, 1세기 그리스-로마 사회가 πίστις의 특별한 종교적 의미보다는 사회적 관계망의 기본적 가치로만 이 단어를 사용한 데 반하여, 바울을 포함한 초기 기독교는 πίστις와 연관된 그리스어 단어들을 폭발적으로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초기 기독교의 πίστις 이용이 동시대의 그것과 큰 차이를 보여 준다면, 그들이 이 그리스어 단어의 의미장에 새로운 혁신적 내용을 추가했다고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다. ‘죽어 있는 우상으로부터 살아 있는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이방인들의 종교적 회심’은 πίστις의 새로운 기독교적 의미장에 대한 그들의 수용을 의미하는 ‘언어적 회심 현상’을 동반했을 것이다.²⁰⁾

이와 관련하여, 두 번째, 초기 기독교 운동은 특별히 예수 복음의 특수한 메시지의 선포와 수용에 결정적으로 의존한다는 측면에서, 그들에게 πίστις는 단순히 관계적 측면에서의 신뢰라는 일반적 의미를 넘어서, 예수 복음의 특별한 메시지에 대한 그들의 인식론적 수용과 그에 따른 명제론적 믿음을 포함한다.²¹⁾ 사실 모건은 자신의 πίστις 분석에서 이 단어의 관계적 측면을 강조해야 할 이유로, 바울 학자들이 라틴어 단어 *fides*에 대한 어거스틴의 *fides quael*(무엇을 믿는가?)와 *fides qua*(어떻게 믿는가?)의 구분에 영향 받았음을 든다. 모건은 바울 학자들이 어거스틴의 후시대적 구분을 바울에게 시대착오적으로 적용하여, 명제적 진리에 대한 긍정적 수용 혹은 인식론적 믿음으로 πίστις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²²⁾ 모건은 명제적 진리에 대한 인식론적 믿음은 πίστις보다는 생각과 사고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단어들을 통해서 표현되었고, 이러한 인식론적 믿음은 바울에게 의미 있는 중심 개념이 아니었다고 말한다.²³⁾ 그러나 바울에게는 예수 복음과 연관된 특별한 명제적 진리에 대한 인식론적 믿음이 하나님과 인류가 함께 새롭게 형성해야 할 신뢰 관계에 선행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예수-믿음’은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에 기반을 둔 성도 개인과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가장 결정적으로 규정한다(비교, 고전 15:2-3; 롬 10:2-10).²⁴⁾ 이 사실을 우리

20) M. Seifrid, “Roman Faith and Christian Faith”, *New Testament Studies* 64:2 (2018), 251.

21) *Ibid.*, 251-252.

22) T. Morgan, *Roman Faith and Christian Faith: Pistis and Fides in the Early Roman Empire and Early Churches*, 444.

23) *Ibid.*, 261, 346, 514, 530.

24) F. Watson, “Roman Faith and Christian Faith”, *New Testament Studies* 64:2 (2018), 243; D.

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되겠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을 향한 호칭으로 사용했던 그리스어 표현 ‘믿는 자들’(τοῖς πιστεύουσιν, 살전 1:7; 2:10, 13; 롬 1:16; 3:22; 4:11)의 중요성에서 잘 발견할 수 있다.²⁵⁾

그리고 단순히 바울의 πίστις 이해가 그가 속한 사회의 일반적 언어 용례를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모건의 전제에 반하여, 예수 복음에 대한 πίστις는 바울과 동시대 이방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메시아에 대한 긍정적 수용 반응을 담고 있다(비교, 고전 1:22-24). 바울과 이방인 성도들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메시아 예수와 자신의 아들을 희생한 하나님에 대한 ‘비상식적’이고도 특별한 명제적 진리를 ‘비상식적’ 믿음으로 수용해야 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πίστις는 자신의 복음 선포에 대한 이방인들의 긍정적 수용의 반응, 즉 그 복음 안에 담겨 있는 예수를 통한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에 대한 인식론적 수용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바울에게 명제적 믿음과 신뢰는 순종과 함께 긴밀하게 연관된 πίστις의 다양한 의미장을 구성한다.²⁶⁾ 이 사실은 바울 학자들이 πίστις가 발견되는 문맥에 맞는 최적의 의미를 해석학적으로 찾아내는 작업을 엄밀하게 수행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 준다. 이어지는 논의에서, 우리는 예수 복음에 담긴 명제적 진리에 대한 믿음의 수용 반응으로서의 바울의 πίστις 이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3. Πίστις — 특별한 복음에 대한 긍정적 수용과 믿음의 반응

바울에게 πίστις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가 선포한 복음의 메시지에 대한 그들의 긍정적 수용과 반응으로서의 믿음 개념을 포함한다. 이 사실은 바울이 자신이 선포한 복음을 ‘믿음의 말씀’(τὸ ῥῆμα τῆς πίστεως, 롬 10:8), 즉 믿음으로 수용하며 반응해야 할 믿음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에서 잘 발견된다.²⁷⁾ 바울은 로마서 10:11-15에서 말씀은 ‘자신이 선포한 예수에 관한 복음’을

Konstan, “Trusting in Jesus”, 247-254.

25) 참조, P. R. Trebilco, *Self-Designations and Group Identity in the New Testament*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118, 304.

26) 참조, F. G. Downing, “Ambiguity, Ancient Semantics, and Faith”, *New Testament Studies* 56:1 (2010), 140, 161.

27) 참조, J. A. Fitzmyer, *Roman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he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1993), 591. 비교, B. Byrne, *Romans*, Sacra Pagina Series 6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1996), 321.

가리키고, 믿음은 ‘선포된 복음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인간의 긍정적 수용의 반응’임을 자세히 설명한다. 이 본문에서 πίστις는 단순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성도들의 일반적 신뢰를 지칭한다기보다는, 혹은 우상들이 아닌 창조주에 대한 추상적 신뢰를 가리킨다기보다는, ‘하나님은 주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라는 특별하고도 구체적인 복음의 메시지에 대한 성도들의 믿음의 수용을 의미한다(10:9). 이처럼 하나님과 예수에 관한 특별한 지식을 담은 말씀을 그 대상으로 하는 πίστις는 성도들이 예수를 자신들의 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과 새로운 신뢰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시작을 의미한다(10:10). 바울에게는 하나님과 예수에 관한 이 특별한 명제적 진리를 마음으로 믿는 πίστις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포됨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통로로 기능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믿음’(πίστις Ἰησοῦ)을 어떻게 정의하든지 간에, 이 표현은 예수의 희생에 기반하여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인간이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믿음의 반응을 포함해야 한다.²⁸⁾ 이 사실은 이 표현이 등장하는 곳마다 바울이 즉각적으로 πίστις의 동사형 ἐπιστεύσαμεν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강조하는 이유를 잘 설명해 준다(갈 2:16; 비교, 3:22; 롬 3:22).²⁹⁾ 후자의 동사형 표현은, 주격 소유격 견해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자의 명사형 표현에 대한 불필요한 반복이 아니라,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한 호칭으로 기능하면서 그들이 소유한 특별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해 준다.³⁰⁾

사실, 이 믿음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이 보기에 어떤 선한 것도 창출해 낼 수 없다는 인간의 영적 파산을 완전히 수용하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한 구원의 사건에 자신의 존재를 전적으로 의지함을 의미한다.³¹⁾

28) 모건은 후커(M. Hooker)의 견해를 따르면서 이 그리스어 표현이 하나님을 향한 예수의 신실함과 예수를 향한 인간의 믿음 둘 다를 동시에 표현한다고 주장한다. 참조, T. Morgan, *Roman Faith and Christian Faith: Pistis and Fides in the Early Roman Empire and Early Churches*, 273; M. Hooker, “Another Look at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69:1 (2016), 46-62. 그러나 후커를 포함하여 주격 소유격(그리스도 중심적) 견해를 견지하는 학자들은 인간의 믿음의 반응을 바울의 구원 이해에서 제외시키는 경향이 있다.

29) 주격 소유격의 견해를 가진 학자들은 이 동사형 표현과 목적격 소유격 이해가 불필요한 반복 현상을 일으킨다고 주장한다. 참조, M. C. Easter, “The Pistis Christou Debate: Main Arguments and Responses in Summary”, 38-39.

30) R. Schellenberg, “Οἱ Πιστεύοντες: An Early Christ-Group Self-Designation and Paul’s Rhetoric of Faith”, *New Testament Studies* 65:1 (2019), 6.

31) J. M. G. Barclay, “Pure Grace?: Paul’s Distinctive Jewish Theology of Gift”, *Studia theologica* 68:1 (2014), 13; J. M. G. Barclay, “Faith and Self-Detachment from Cultural Norms: A Study in Romans 14-15”, *Zeitschrift für die neutestamentliche Wissenschaft und die Kunde der*

바울은,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지에 상관없이, 아무도 율법의 행위 혹은 인간의 선한 행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포될 수 없음을 선언한다(비교, 롬 1:18-3:24; 10:12-13).³²⁾ 오직 인류는 그들의 새로운 대표자가 되는 새 아담 예수의 한 의로운 희생에 근거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로움과 영원한 생명을 경험할 수 있을 뿐이다(6:12-21; 비교, 고전 1:30). 이런 면에서, 믿음은 율법의 일들을 대치하는 또 다른 인간의 대안적 업적 혹은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예수만이 인간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급진적 자기 부정을 표현한다. 바울에게 칭의는 종말론적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고 선포될 미래의 사실을 성도들이 현재 회심의 때에 선언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종말론적 사건이다.³³⁾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이룬 사역을 믿음으로 수용함을 통해서 경험하는 칭의는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죄 아래서 살다가 죽음을 경험해야 할 저주받은 운명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한다(비교, 롬 3:9, 19). 따라서 바울에게 칭의의 통로인 *πίστις*는 단순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성도들의 일반적 신뢰의 의미보다도 훨씬 더 구체적으로 ‘구원을 주는 믿음’이라고 불린다(10:10).³⁴⁾ 모건의 *πίστις* 이해는 *πίστις*에 담긴 이러한 바울신학의 특별성을 일반적 신뢰 관계의 개념보다도 더 부차적이고 사소한 것으로 격하시키는 경향이 있다.³⁵⁾ 바울에게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신뢰 관계는 선포된 예수 복음에 대한 수용적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그리고 오직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건은 간과하고 있다. 성도들이 복음을 향하여 표현하는 수용적 믿음으로서의 *πίστις*는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와의 신뢰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통로이고, 그 신뢰 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순종의 삶을 살게 하는 근거이다.

바울이 선포한 예수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인간의 일반적 신뢰 범위 바깥에 존재하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근거한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을 가리키므로(비교, 살전 1:9-10), 성도들의 믿음은 개인적 공동체적 의심, 혹은

älteren Kirche 104:2 (2013), 199; Jeanette Hagen Pifer, *Faith as Participation: An Exegetical Study of Some Key Pauline Texts*, 246.

32) 지난 3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바울 연구는 ‘율법의 일들/행위들’의 의미에 대해서 열띤 논쟁을 벌였다. 그 논쟁의 중심에는 던이 서 있었다. 그러나 본 논문의 제한된 특성상, 이 주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33) 참조, 이승현, “아브라함과 성령을 통해서 본 갈라디아인들의 칭의 이해”, 『신약논단』 27 (2020), 229-269.

34) 참조, M. Seifrid, “Roman Faith and Christian Faith”, 250; D. M. Hay, “Pistis as ‘Ground for Faith’ in Hellenized Judaism and Paul”,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08:3 (1989), 471-475.

35) 비교, T. Morgan, *Roman Faith and Christian Faith: Pistis and Fides in the Early Roman Empire and Early Churches*, 24, 30, 514.

회의에 의해서 도전받기도 한다. 하나님과 맺게 된 신뢰 관계와 성도들의 새로운 정체성이 모두 예수 복음에 대한 그들의 수용적 믿음, 즉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제시한 구원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수용함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므로, 선포되고 믿었던 복음의 메시지에 대한 성도들의 의심은 그들의 정체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둘 다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만약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들의 믿음이 헛된 것이 되고, 그들이 여전히 죄 아래 놓여 있을 것이며, 예수 안에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희망도 무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고전 15:14-20). 십자가에서 성도들의 죄를 위하여 죽고 부활한 예수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은 그가 고린도인들에게 선포한 예수 복음의 핵심 내용을 이룬다(15:3-5). 바울에 따르면, 고린도인들이 예수 복음의 메시지를 굳게 믿을 때, 그 메시지는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특별한 지식으로 기능한다(15:1-2). 고린도인들에게 선포된 복음은 바울 당시 고린도인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죄수에 대한 특별한 구원사적 이해를 신조의 형태로 간략하게 요약된 방식으로 그들에게 전달한다(비교, 1:23; 15:1-3). 바울 복음에 대한 고린도인들의 πίστις는 단순히 사도 바울에 대한, 혹은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 신뢰를 넘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 복음의 메시지를 수용하기 위한 특별한 ‘믿음의 도약’(leap of faith)을 필요로 한다.³⁶⁾ 예수 복음이 요구하는 급진적 믿음의 도약은 바울의 πίστις가 상호간에 신뢰할 수 있다는 신실함의 전제하에 형성된 신뢰 관계의 일반적 의미 너머에 존재하는, 따라서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일반적 πίστις의 의미장에 새롭게 추가한 그들 신앙의 핵심 요소이다.³⁷⁾

초대교회 성도들이 πίστις에 부여한 특별한 강조점은 ‘믿는 자들’(τοῖς πιστεύουσιν, 살전 1:7; 2:10, 13; 롬 3:22; 4:11; 비교, 고전 1:2; 행 9:14, 21)이라는 표현이 단순히 일반적 의미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지칭하는 성도들의 자기 호칭이 아니었음을 알려 준다. 이 표현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룬 특별한 구원 사역에 대한 구체적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과의 지속적 신뢰 관계에 놓이게 된 성도들의 자기 정체성을

36) 여기서 ‘믿음의 도약’이라는 표현은 십자가 복음이 자연인에게 주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고 수용하기 힘든 상태와, 그 복음이 믿음의 대상으로 간주되는 상태 간의 큰 간격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참조, F. Watson, “Roman Faith and Christian Faith”, 243; Alexander, “A Map of Understanding: The Riskiness of Trust in the World of the Early Christians”, 287.

37) 참조, M. Seifrid, “Roman Faith and Christian Faith”, 251; D. Konstan, “Trusting in Jesus”, 250.

표현하는 초대교회의 전문 용어였다.³⁸⁾ 이런 측면에서 볼 때, πίστις는 구원을 가져다주는 예수를 향한 개인들의 믿음을 넘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공동체적 의미를 그 안에 함축하고 있다.³⁹⁾ 왜냐하면 믿음을 통한 성도 개인의 회심은 회심한 자들로 구성된 예수의 몸 된 공동체로의 연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믿음’에 대한 주격 소유격의 견해를 견지하는 학자들이 종종 실수하듯이, πίστις에 담긴 개인적 측면에서의 예수를 향한 믿음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하거나 제거하려 해서는 안 된다.⁴⁰⁾ 바울에게 πίστις는 믿는 자들이라는 공동체적 정체성에 대한 정의에 앞서, 한 개인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여 보이는 개인적 태도와 연관이 깊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바울이 이사야 28:16을 인용하면서, 시온에 위치한 주의 반석이 바로 예수를 가리키고, 그 반석인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강조하는 그의 논지에서 잘 보여진다(롬 9:32-33; 10:12-13). 여기서 바울은 이사야의 구원의 반석인 예수를 향한 개인적 믿음의 중요성을 그리스어 표현 πᾶς ὁ πιστεύων ἐπ’ αὐτῷ를 통해서 강조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πίστις를 관계적 측면에서의 일반적 신뢰로 단순화시키거나, 혹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의 보편적 특징으로만 제한하지 말고, 성도 개인이 예수-복음을 향하여 보여 주는 개인적 태도를 포함한 다중적(multi-faceted)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강조해야 할 사실은, 바울에게 성도들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복음은 어떤 면에서, 예수의 죽음의 희생 이상으로 그의 부활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⁴¹⁾ 이 사실은 바울이 하나님을 ‘예수를 희생한 분’으로가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시킨 분’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에서 잘 보여진다(롬 10:8-10). 바울이 처음 고린도

38) 참조, P. R. Trebilco, *Self-Designations and Group Identity in the New Testament*, 90, 120, 300; R. Schellenberg, “Οἱ Πιστεύοντες: An Early Christ-Group Self-Designation and Paul’s Rhetoric of Faith”, 33-42.

39) 참조, B. C. Dunson, “Faith in Romans: The Salvation of the Individual or Life in Community?”,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34:1 (2011), 20-21. 비교, Douglas A. Campbell, *The Deliverance of God: An Apocalyptic Rereading of Justification in Paul* (Grand Rapids: W. B. Eerdmans Pub. Co., 2009), 3-8, 384-392.

40)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학자들의 논쟁과 참고문헌에 대한 정보를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M. C. Easter, “The Pistis Christou Debate: Main Arguments and Responses in Summary”, 39-41.

41) 예수의 희생의 죽음이 바울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저자는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 단지, 바울 신학에서 예수 부활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좀더 강조하기 원한다.

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은 예수의 죽음, 장사 지냄, 부활, 그리고 현현 등의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비교, 고전 15:3-5). 예수의 장사 지냄은 그의 죽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그리고 제자들 앞에 나타난 부활한 예수의 현현은 그의 부활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기능한다. 이런 측면에서, 바울 복음은 크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만약 예수의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그의 죽음은 단순히 순교자의 희생의 죽음으로 치부될 뿐, 인류의 죄를 위한 예수의 희생과 그를 내어 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롬 1:16-17; 5:6-8)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⁴²⁾ 예수의 부활은 그에게 내려진 십자가 처형이 단순히 인간으로부터 온 형벌이 아니라, 죄와 죽음을 극복하는 그의 메시아적 사역임을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선포한 사건이다. 동시에, 예수의 부활은 실패처럼 보이는 메시아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의 결정적 성취를 의미한다는 반전적 사실도 알려 준다.⁴³⁾ 예수의 부활은 그를 이 땅에 보내고 희생한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계획의 성취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로 기능한다. 나아가,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예수의 특별한 존재론적 중요성에 대한 신적 선포와 더불어, 현재 우주의 주로 높아진 그의 특별한 지위에 대한 근거를 제공한다. 이런 면에서, 예수의 부활에 대한 바울의 메시지는 예수에 관한 기독교론적으로(Christological) 중요한 정보와 더불어, 하나님의 정체와 인류를 향한 그의 특별한 사역에 관한 신론적(Theological) 정보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예수의 부활 사건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한 우주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에, 복음을 접한 인간 편에서의 인식론적 동의를 긴급하게 요청한다.⁴⁴⁾ 그러므로 바울이 선포한 예수 복음에 대한 이방인들의 πίστις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의 예수의 특별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론적 자각과 더불어, 그를 통해서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반응을 함께 표현한다. 이 사실은 그리스어 표현 πίστι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가 단순히 예수의 신실함의 표현으로서의 자기희생에 대한 한 가지 가르침보다는, 바울 복음에 담긴 예수의 존재론적 가치와 중요성, 하나님의 신적 구원 계획, 그리고 인간의 반응들 전체를 한 마디로 아우르는 역동적 표현

42) 참조, 이승현, “고린도전서 11:23의 παραδίδοτο의 번역 재고”, 『성경원문연구』 42 (2018), 45-67.

43) 참조, L. W. Hurtado, “Resurrection-Faith and the ‘Historical’ Jesus”,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Historical Jesus* 11 (2013), 44-45.

44) Ibid., 43-44.

임을 알려 준다.

바울에게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 기초가 되는 믿음으로서의 *πίστις*는, 첫 번째, 성도들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예수 복음에 대한 특별한 명제적 진리를 전제로 하고, 두 번째, 그 명제적 진리에 대한 성도들의 마음의 확신, 혹은 긍정적 수용을 그 의미장 안에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바울에게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명제적 진리는 인류를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신실함이 예수 사건을 통해서 계시되었다는 구체적 사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믿음은 선포된 복음의 형태로 그 사실이 전해질 때, 인간이 마음의 확신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함을 통해서 표현된다.⁴⁵⁾ 사실, 바울의 관점에서는,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이 듣는 자들의 마음 안에서 어떤 특별한 변화를 유발하여,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 복음의 내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믿음으로서의 *πίστις*는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 안에서 발생하는 그 어떤 내적 인식의 변화와 깊은 연관이 있다. 그리고 이 내적 변화는 인간의 설득력 있는 말이나 논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복음과 함께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말미암는다(비교, 고전 1:24; 15:10-11; 고후 4:1-6).⁴⁶⁾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확증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경험되기에(살전 1:5; 고전 2:10-16), 성령의 특별한 역사 아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고 칭하지 않고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게 된다(고전 12:3; 비교, 빌 2:9-11).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 평가는 저주받은 자임에 반하여, 눈에 보이는 십자가 현상 이면에 담긴 높아진 예수의 실체를 믿음으로 인식한 성도들은 그를 주라고 고백하게 된다(롬 10:9). 복음이 선포될 때, 듣는 자들의 마음 안에서 회심을 일으키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는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기에, 성령의 경험을 초래한 복음에 대한 믿음을 경험한 후 율법의 일들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갈라디아의 성도들은, 바울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어리석은 자들이다(갈 3:1-5). 바울에게 믿음이 율법의 일들과 달리 또 다른 인간의 행위적 업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구원의 근거인 예수의 희생이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은혜로 주어진 선물인 동시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 마음 안에서 결정적 변화를 일으켜 믿음의 반응을 유도하기 때문이다.⁴⁷⁾

45) D. Konstan, “Trusting in Jesus”, 247-248.

46) 참조, D. M. Hay, “Pistis as ‘Ground for Faith’ in Hellenized Judaism and Paul”, 475.

47)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인간의 반응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간에 놓인 신비한 긴장 관계

여기서 믿음으로 표현되는 바울의 πίστις는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에 필요한 추상적이고 의무적인 신뢰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를 그 근거로 삼고 있다. 이미 앞에서 언급된 것처럼,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구원자로 기능한 다양한 사건들을 근거로, 자신의 신실함을 이스라엘이 신뢰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바울에게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믿음과 신뢰의 구체적 이유는, 이스라엘의 구원사의 절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예수의 희생 사건에서 발견된다. 이런 면에서, 바울에게 예수는 과거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의 기준으로 기능한 율법의 완성인 동시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이 약속한 미래 구원의 현재적 실체이다(갈 3:22-25; 4:1-6; 롬 1:1-6; 8:3-4; 비교, 눅 24:44-46). 따라서 바울 학자들의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그리스어 표현 πίστι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에서 예수는 단순히 인간이 따라야 할 신실함의 모범이 아니라,⁴⁸⁾ 하나님 편에서 오는 은혜 전체를 표현하는 환유어(metonym)의 기능을 한다.⁴⁹⁾ 그리고 이 표현에서 πίστις는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의 영향력 아래 놓인) 인간 편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이는, 그리고 동시에 그 은혜를 대변하는 예수를 향하여 보이는, 수용적 믿음의 반응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⁵⁰⁾

바울에게 πίστις가,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를 죽음에서 부활시킨 ‘하나님을 향한다’는 사실은 πίστις가 단순히 ‘예수의 희생의 죽음’, 혹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 자신의 신실함’만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사건 전체와 연관된 광의의 개념임을 알려 준다(비교, 갈 3:6; 롬 10:9-10). 바울에게 믿음으로 표현되는 πίστις는 예수의 희생의 죽음에 근거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객관적 종말론적 사건에 대한 인간의 주관적 반응을 가리킨다.⁵¹⁾ 그리

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에 담긴 논문들을 참조하라. J. M. G. Barclay and Simon J. Gathercole, *Divine and Human Agency in Paul and His Cultural Environment*, Library of New Testament Studies (London: T & T Clark, 2008).

48)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헤이즈는 이 표현을 하나님과 인류를 향한 예수의 신실함으로 이해하면서 이 표현이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에 대한 환유어라고 주장한다. 참조, R. B. Hays, *The Faith of Jesus Christ: The Narrative Substructure of Galatians 3:1-4:11*, 2nd ed. (Grand Rapids: W. B. Eerdmans, 2002), xxx-xxxi.

49) J. M. G. Barclay, *Paul and the Gift*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15), 371.

50) 참조, P. Oakes, “Pistis as Relational Way of Life in Galatians”, 272. 본 논문의 제한된 특성상 우리는 이 표현에 대한 상세한 논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이 표현에 대한 목적격과 주격 해석들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을 위해서는 다음의 책에 담긴 논문들을 참고하라. M. F. Bird and P. M. Sprinkle, *The Faith of Jesus Christ: Exegetical,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

51) P. M. Sprinkle,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as an Eschatological Event”, 168; Jeanette Hagen Pifer, *Faith*

고 이방인들이 선포된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그들의 전 존재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의미하는 예수 사건의 역동적 변화 속으로, 그리고 주로 높아진 예수의 통치 영역 안으로 빨려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⁵²⁾ 그러므로 성도들이 회심의 때에, 그리고 이어지는 그들의 순종의 삶에서 보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인간적 관점에서 볼 때 도무지 불가능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그들이 인식론적으로, 그리고 존재론적으로 동참하게 되었다는 사실의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이다. 이에 바울은 예수를 믿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건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살아난 새창조의 삶과 동일시한다(갈 2:16-21; 6:14-15).⁵³⁾ 이런 면에서, 바울의 πίστις는 복음을 듣고 회심할 때 보이는 믿음의 수용 반응을 넘어서, 예수에게 발생한 부활이 자신들에게도 경험적으로 허락될 것이라는 새로운 삶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포함하게 된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신뢰 관계 속에 놓이게 된 성도들의 새로운 삶의 원칙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이어지는 논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4. Πίστις —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서의 지속적 순종

바울을 포함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을 가리키는 호칭들 중, 우리의 주제와 가장 연관이 깊은 표현은 ‘믿는 자들’(τοῖς πιστεύουσιν, 살전 1:7; 2:10, 13; 롬 1:16; 3:22; 4:11)이다.⁵⁴⁾ 이 표현에서 발견되는 흥미로운 점 두 가지는, 첫 번째, 바울이 그리스어 동사 πιστεύω의 목적어를 분명하게 표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두 번째, 이 동사가 현재 분사형의 형태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첫 번째, 이 현재 분사형 동사가 언급되는 곳에서 바울은 즉각적으로, 혹은 이 동사의 명사형 πίστις를 통하여, 이 단어들 가리키는 목적격 대상으로 하나님과 말씀 그리고 예수를 제시한다(살전

as Participation: An Exegetical Study of Some Key Pauline Texts, 243.

52) J. M. G. Barclay, *Paul and the Gift*, 378-379; Jeanette Hagen Pifer, *Faith as Participation: An Exegetical Study of Some Key Pauline Texts*, 245.

53) 참조, P. Oakes, “Pistis as Relational Way of Life in Galatians”, 261; B. Schliesser, *Abraham's Faith in Romans 4: Paul's Concept of Faith in Light of the History of Reception of Genesis 15:6*, WUNT 2/224 (Tübingen: Mohr Siebeck, 2007), 409.

54) P. R. Trebilco는 이 표현이 바울이 만들어 낸 표현이 아니라, 바울 이전 초대교회의 오래된 전통에 속한 것으로 본다(비교, 갈 2:15-16). 참조, P. R. Trebilco, *Self-Designations and Group Identity in the New Testament*, 90.

1:8-10; 롬 1:16-18; 3:21-26).⁵⁵⁾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인간의 우상 숭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라는 해결책을 그 안에 담고 있다(비교, 롬 1:18-3:20). 윤리적, 그리고 관계적 측면에서의 이중적 함의를 담은 하나님의 의는 예수의 희생을 통해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3:25).⁵⁶⁾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리고 예수 를 통해서 성취된, 인류 구원에 대한 해결책인 복음이 인류에게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인간 편에서 보이는 믿음의 반응을 필요로 한다.⁵⁷⁾ 바울에게 믿는 자들은, 일차적으로, 바울이 선포한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수용하는 자들을 일컫는다(비교, 살전 2:13). 그 결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1:5). 로마서 9:30-10:4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했던 돌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에 이를 수 있다고 선포한다. 이어지는 로마서 10:5-17에서 바울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를 부활시킨 분으로 믿는 것 등을 상호 긴밀하게 연관시키면서, 성도들 개인이 전인적으로 수용해야 할 믿음의 구체적 내용으로 제시한다. 이 복음의 구체적 내용들에 대한 성도들의 믿음은 그들로 하여금 구원과 의로움, 그리고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바울은 인간 편에서 보이는 믿음의 반응을 인간 편에서 시도한 또 다른 행위적 반응으로서의 율법의 일들과 대조시킨다(롬 3:27-30). 바울이 율법의 일들에 대한 추구를 제한하는 이유는 그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율법의 의도하는 하나님의 의의 성취에 결코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 위의 믿는 자들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표현이 현재 분사형의 형태로 발견된다는 사실은 그 동사에 포함된 행동이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알려 준다.⁵⁸⁾ 다시 말하면, 이 현재 분사형 동사는 성도들이 선포된 예수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수용적 믿음의

55) 참조, D. M. Hay, "Pistis as 'Ground for Faith' in Hellenized Judaism and Paul", 471-473; B. Schliesser, *Abraham's Faith in Romans 4: Paul's Concept of Faith in Light of the History of Reception of Genesis 15:6*, 408-410.

56) 참조, 이승현, "바울의 복음에 대한 로마서 1:18의 γάρ와 하박국 2:4의 해석학적 기능, 그리고 새 관점", 「신약논단」 27 (2020), 650-661.

57) 참조, B. Byrne, *Romans*, 52; J. A. Fitzmyer, *Roman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256.

58) Herbert Weir Smyth and Gordon M. Messing, *Greek Grammar*, Rev. ed.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6), 419-420; D. B. Wallace,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An Exegetical Syntax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1996), 621.

반응을 보인 후, 그 믿음을 근거로 현재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헌신을 자신들의 삶의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려 준다.⁵⁹⁾ 자신들의 새로운 믿음에 근거하여 성도들이 현재 보여 주는 믿음의 헌신은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 속에서 지속적인 순종의 형태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복음 사역의 결과로 이방인들에게서 맺고 싶은 열매를 ‘믿음의 순종’(롬 1:5; 16:26; 비교, 15:18; 고후 7:15; 10:5)이라고 부른다. 믿음의 순종으로 번역된 그리스어 표현 ὑπακοή πίστεως는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이 보이는 최초의 반응으로서의 믿음이라는 순종을 의미하는 동시에, 그 최초의 믿음의 반응 이후 그 믿음이 요구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살아 있는 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지속적 삶의 방식으로서의 순종을 의미한다(비교, 롬 1:5; 16:19).⁶⁰⁾ 예수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인간에게 주어지지만, 그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 편에서 경험해야 하는 내적 변화를 유도한 후, 그 변화의 표현으로서의 새로운 순종을 요청한다.⁶¹⁾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인하여 감사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노예에서 의의 노예로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들이 믿고 헌신한 복음의 가르침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이다(롬 6:17-18). 바울에게 순종은 현재 은혜 아래 놓인 성도들의 존재론적 상태, 혹은 삶의 방식을 의미한다.⁶²⁾ 바울은 이 사실을 자신에게도 적용하면서, 자신의 사도로서의 삶과 사역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 하였으나,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했다(저자 번역, 고전 15:10).

59) 참조, B. Byrne, *Romans*, 52.

60) 참조, P. R. Trebilco, *Self-Designations and Group Identity in the New Testament*, 89; B. Schliesser, “Faith in Early Christianity”, 22; J. A. Fitzmyer, *Roman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237-238; R. N. Longenecker, *The Epistle to the Romans: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NIGTC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2016), 79-80; D. J. Moo, *The Epistle to the Romans*, NIGTC (Grand Rapids: W. B. Eerdmans, 1996), 52-53. 비교, B. Byrne, *Romans*, 46.

61) 참조, J. M. G. Barclay, “A Conversation around Grace”, *The Evangelical Quarterly* 89:4 (2018), 339; *Paul and the Gift*, 446, 492; B. Schliesser, “Faith in Early Christianity”, 22; B. Schliesser, *Abraham’s Faith in Romans 4: Paul’s Concept of Faith in Light of the History of Reception of Genesis 15:6*, 408-409. 비교, N. K. Gupta, *Paul and the Language of Faith*, 179-181.

62) J. M. G. Barclay, “Pure Grace?: Paul’s Distinctive Jewish Theology of Gift”, 15.

선포된 복음에 대한 성도들의 믿음의 순종은 성도들이 복음 앞에서 경험한 개인적 회심의 경험을 가장 잘 반영하는 동시에, 그들의 현재 삶의 방식과 정체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표현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바울에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성도들의 정체성의 표식은 율법의 소유 여부나 할례가 아니라, 예수와 그를 보낸 하나님을 향하여 보이는 그들의 현재적 실체로서의 믿음과 순종이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모건의 주장처럼, 단순히 일반적 측면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예수 복음의 메시지와 그에 대한 특별한 믿음의 반응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헌신적 순종의 관계 속에 거하게 된 성도들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 특별한 믿음의 경험은 성도들의 집단적 자의식의 공통분모로서, 그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신앙적 전제들을 한마디로 아우른다.⁶³⁾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게 πίστις의 중요성은 이 단어가 명사와 동사의 형태로 신약성경에서 240번 이상 등장하고, 형용사의 형태로 70여 번 등장한다는 사실에서 잘 보여진다.⁶⁴⁾ 바울의 용례에서 이 그리스어 단어는 예수와 성도들 간에 놓인 특별한 관계를 묘사하는 제일 중요한 용어로 기능하고 있다(롬 3:9, 22, 26; 갈 2:16, 20; 3:22; 빌 3:9). 이 특별한 믿음의 중요성 때문에 믿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모건의 예상과 달리, 예수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단순히 신뢰를 자신들의 관계망의 덕목으로 간주하는 외부인들과 가장 명백하게 구분한다.

바울에게 성도들이 믿음을 통해서 경험하는 현재적 칭의와 구원은 모두 종말론적 미래에 속한 사건이다. 칭의와 구원이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소망에 속하기에, 바울에게 πίστις는 선포된 예수 복음에 대한 최초의 긍정적 수용의 반응을 넘어서, 미래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의 삶의 전 과정을 특징짓는 항시적 종말론적 개념이 된다(비교, 갈 5:5-6).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과거 예수 사건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경험한 칭의와 현재 주로 높아진 예수 안에서 새롭게 경험하고 있는 생명을 동일시한 후, 자신이 주 예수를 모시고 사는 현재의 삶을 그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이라고 규정한다(ἐν πίστει ζῶ τῇ τοῦ υἱοῦ τοῦ θεοῦ, 2:19-20).⁶⁵⁾ 바울은 종종 믿음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사는 성도들의 현재 삶

63) 참조, P. R. Trebilco, *Self-Designations and Group Identity in the New Testament*, 118, 300; B. Schliesser, “Faith in Early Christianity”, 22.

64) B. Schliesser, “Faith in Early Christianity”, 3.

65) 바울은 갈라디아서 2-3장에서 πίστις가 현재 성도들의 삶에서 역동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실체임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강조한다. 참조, P. Oakes, “Pistis as Relational Way of

을 죄와 율법 아래 살던 그들의 과거 삶과 강력하게 대조한다(롬 3:9, 19; 6:14-15; 7:14; 갈 3:22-23; 4:5). 왜냐하면 바울에게 πίστις는 죄와 율법이라는 인류를 통치하던 삶의 영역과 대조되는, 성도들의 새로운 삶이 존재하게 된 은혜의 영역이기 때문이다(비교, 롬 6:12-23). 이런 면에서, πίστις는 예수의 등장과 함께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참여하게 된, 종말론적 실체로서의 새로운 존재 영역이다(갈 3:23).⁶⁶⁾

바울에게 πίστις가 복음에 대한 최초 믿음의 반응을 넘어서, 그 복음을 제시한 하나님에 대한 지속적 헌신과 순종을 의미하기에, 바울은 πίστις를 현재 성도들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맺고 있는 살아 있는 신뢰 관계의 가장 현저한 특징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πίστις가 성도들이 현재 하나님과 주 예수를 향하여 소유한 항시적 태도를 의미하기에, πίστις는 성도들의 삶의 과정에서 성장하거나 시험에 들어 위축될 수도 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첫 번째 편지에 따르면, 바울은 그들의 현재 믿음의 순종의 상태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 이에 바울은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현재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알아보게 한다(살전 3:2-3). 디모데가 돌아와 ‘사랑으로 표현되는’ 그들 믿음의 ‘건강한 상태’에 대해서 보고하자, 바울은 크게 기뻐하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주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으라고 권면한다(3:6-8; 비교, 갈 5:6). 이 본문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주를 향한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을 성도들의 현재적 삶의 본질, 즉 믿음의 순종을 한 마디로 요약하는 것으로 제시한다.⁶⁷⁾ 그러나 바울에게 현재적 삶의 원칙으로서의 πίστις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법을 향한 순종으로 표현된다(고후 10:5-6; 갈 6:2). 그리고 πίστις는 성령의 열매인 동시에(5:22),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고(5:6) 사랑과 소망에 의해서 더 완전해지는 성도들의 새로운 존재 방식을 일컫는다(고전 13:13; 살전 1:3).⁶⁸⁾

바울은 성도들이 소유해야 할 지속적으로 견고한 순종의 믿음을 소유한 가장 훌륭한 예로 아브라함을 든다(롬 4). 아브라함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지만, 그 약속의

Life in Galatians”, 269.

66) 참조, B. Schliesser, “‘Christ-Faith’ as an Eschatological Event (Galatians 3.23-26): A ‘Third View’ on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277-300; B. Schliesser, *Abraham’s Faith in Romans 4: Paul’s Concept of Faith in Light of the History of Reception of Genesis 15:6*, 392-393.

67) 참조, Abraham J. Malherbe, *The Letters to the Thessalonian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he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2000), 167; P. R. Trebilco, *Self-Designations and Group Identity in the New Testament*, 74-75.

68) 참조, B. Schliesser, “Faith in Early Christianity”, 22, n.65.

성취에 이르기까지 견고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 신뢰와 순종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사라의 죽은 것과 같은 육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에서 결코 약해지지 않았다. 도리어, 그는 더 강한 믿음의 확신과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요, 그들이 따라야 할 믿음의 표본이 되었다(4:20-21).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의 절정은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에 대한 그의 절대적 순종에서 발견된다.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계속해서 견고하게 성장해야 할 성도들의 믿음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바울은 ἐκ πίστεως εἰς πίστιν이라는 그리스어 표현을 사용한다(1:17).⁶⁹⁾ 이처럼 바울이 πίστις에 대해서 가장 빈번하게 논의하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한 인물로 다루어지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물론, 아브라함을 율법 준수의 가장 훌륭한 모범으로 간주하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칭의가 율법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통해서라는 바울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는 급진적 주장이었을 것이다.⁷⁰⁾

5. 나가는 말

이 논문에서 우리는 바울신학의 핵심 개념인 πίστις의 삼중적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관찰해 보았다. 먼저, 바울에게 πίστις는 예수 사건에 담긴 구원의 메시지에 대한 성도들의 인식론적 변화와 긍정적 수용을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πίστις는 예수 복음이 담고 있는 명제론적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서, 예수 사건이 성취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성도들의 개인적 확신을 표현한다. 그러나 두 번째, πίστις는 객관적 예수 사건에 대한 개인적 믿음을 통하여 그 구원을 계획하고 성취한 하나님과 예수를 향한 전인적 신뢰를 의미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향한 신실함을 자신의 구원 계획을 성

69) 참조, J. W. Taylor, "From Faith to Faith: Romans 1.17 in the Light of Greek Idiom", *New Testament Studies* 50 (2004), 337-348. 비교, D. A. Campbell, "Romans 1:17—a Crux Interpretum for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Debate",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13:2 (1994), 265-285. 학자들의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었던 이 그리스어 표현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R. N. Longenecker, *The Epistle to the Romans: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176-181; B. Byrne, *Romans*, 60-61; J. A. Fitzmyer, *Roman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263-264.

70) 참조, B. Schliesser, *Abraham's Faith in Romans 4: Paul's Concept of Faith in Light of the History of Reception of Genesis 15:6*, 152-220.

취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냄으로써 증명했다. 바울 복음이 전하는 예수 사건, 즉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도들은 자신들의 구원자인 하나님과 주 예수의 신실함에 대해서 신뢰하게 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성도들의 인식론적 동의와 수용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에 대한 신뢰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지속적 믿음의 순종을 요구한다. 이 믿음의 순종으로서의 πίστις는 성도들이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존재 영역이다.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 헌신과 순종으로서의 πίστις는 시험을 통하여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 가야 하며, 성도들의 삶의 윤리적 규범과 새로운 삶의 원칙으로 기능해야 한다. 이처럼 바울에게 πίστις는 그 안에 다양한 의미를 그 안에 지닌 매우 역동적인 개념이다. 이 사실은 우리가 바울을 해석할 때, 이 그리스어 단어를 단 한 가지 의미를 지닌 단순한 개념으로 환원하여 바울신학의 풍성함을 제한하지 말아야 함을 알려 준다. 우리의 바울 이해는 이 단어가 등장하는 문맥적 상황에 대한 고려 속에서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엄밀하게 규정한 후, 이 단어를 근거로 펼쳐지는 바울의 논지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정당하게 보여 주어야 한다.

<주제어>(Keywords)

믿음, 신뢰, 순종, 예수사건, 예수-믿음.

Faith, Trust, Obedience, Jesus event, Jesus-faith.

(투고 일자: 2021년 7월 23일, 심사 일자: 2021년 8월 20일, 게재 확정 일자: 2021년 10월 20일)

<참고문헌>(References)

- 이승현, “아브라함과 성령을 통해서 본 갈라디아인들의 칭의 이해”, 「신약논단」 27 (2020), 229-269.
- 이승현, “빌립보서 2:6-11을 통해서 본 바울의 기독교론적 구약 사용”, 「신약논단」 26 (2019), 215-256.
- 이승현, “고린도전서 11:23의 παρεδίδετο의 번역 재고”, 「성경원문연구」 42 (2018), 45-67.
- 이승현, “바울의 복음에 대한 로마서 1:18의 γάρ와 하박국 2:4의 해석학적 기능, 그리고 새 관점”, 「신약논단」 27 (2020), 643-687.
- Alexander, L., “A Map of Understanding: The Riskiness of Trust in the World of the Early Christians”,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40:3 (2018), 276-288.
- Barclay, J. M. G., “A Conversation around Grace”, *The Evangelical Quarterly* 89:4 (2018), 339-345.
- Barclay, J. M. G., “Faith and Self-Detachment from Cultural Norms: A Study in Romans 14-15”, *Zeitschrift für die neutestamentliche Wissenschaft und die Kunde der älteren Kirche* 104:2 (2013), 192-208.
- Barclay, J. M. G., *Paul and the Gift*,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15.
- Barclay, J. M. G., “Pure Grace?: Paul’s Distinctive Jewish Theology of Gift”, *Studia theologica* 68:1 (2014), 4-20.
- Barclay, J. M. G. and Gathercole, Simon J, *Divine and Human Agency in Paul and His Cultural Environment*, Library of New Testament Studies, London: T & T Clark, 2008.
- Bird, M. F. and Sprinkle, Preston M., *The Faith of Jesus Christ: Exegetical,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2010.
- Byrne, B., *Romans*, Sacra Pagina Series 6,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1996.
- Campbell, D. A., *The Deliverance of God: An Apocalyptic Rereading of Justification in Paul*, Grand Rapids: W. B. Eerdmans Pub. Co., 2009.
- Campbell, D. A., “Romans 1:17—a Crux Interpretum for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Debate”,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13:2 (1994), 265-285.
- Downing, F. G., “Ambiguity, Ancient Semantics, and Faith”, *New Testament Studies* 56:1 (2010), 139-162.
- Dunson, B. C., “Faith in Romans: The Salvation of the Individual or Life in Community?”,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34:1 (2011), 19-46.

- Easter, M. C., "The Pistis Christou Debate: Main Arguments and Responses in Summary", *Currents in Biblical Research* 9:1 (2010), 33-47.
- Fitzmyer, J. A., *Roman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he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1993.
- Gupta, N. K., *Paul and the Language of Faith*,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20.
- Hagen Pifer, J., *Faith as Participation: An Exegetical Study of Some Key Pauline Texts*, Wissenschaftliche Untersuchungen Zum Neuen Testament 2/486, Tübingen: Mohr Siebeck, 2019.
- Hay, D. M., "Pistis as 'Ground for Faith' in Hellenized Judaism and Paul",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08:3 (1989), 461-476.
- Hay, D. M., and Johnson, E. E., *Pauline Theology*, vol. 4, SBL Symposium Series 4,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7.
- Hays, R. B., *The Faith of Jesus Christ: The Narrative Substructure of Galatians 3:1-4:11*, 2nd ed., Grand Rapids: W. B. Eerdmans, 2002.
- Hays, R. B., *The Moral Vision of the New Testament: Community, Cross, New Creation: A Contemporary Introduction to New Testament Ethics*, San Francisco: HarperSanFrancisco, 1996.
- Hooker, M., "Another Look at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69 (2016), 46-62.
- Horrell, D. G., "Reconfiguring Early Christian 'Faith'", *Ecclesiology* 12:3 (2016), 354-362.
- Hurtado, L. W., "Resurrection-Faith and the 'Historical' Jesus",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Historical Jesus* 11 (2013), 35-52.
- Konstan, D., "Trusting in Jesus",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40:3 (2018), 247-254.
- Lieu, J., "Faith and the Fourth Gospel: A Conversation with Teresa Morgan",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40:3 (2018), 289-298.
- Longenecker, R. N., *The Epistle to the Romans :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NIGTC,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2016.
- Malherbe, A. J., *The Letters to the Thessalonian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he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2000.
- Moo, D. J., *The Epistle to the Romans*, NICNT, Grand Rapids: W. B. Eerdmans, 1996.
- Morgan, T., *Roman Faith and Christian Faith: Pistis and Fides in the Early Roman*

- Empire and Early Churches*, Oxfor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 Oakes, P., “Pistis as Relational Way of Life in Galatians”,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40:3 (2018), 255-275.
- Schellenberg, R., “Οἱ Πιστεύοντες: An Early Christ-Group Self-Designation and Paul’s Rhetoric of Faith”, *New Testament Studies* 65 (2019), 33-42.
- Schliesser, B., *Abraham’s Faith in Romans 4: Paul’s Concept of Faith in Light of the History of Reception of Genesis 15:6*, WUNT 2/224, Tübingen: Mohr Siebeck, 2007.
- Schliesser, B., “‘Christ-Faith’ as an Eschatological Event (Galatians 3.23-26): A ‘Third View’ on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38:3 (2016), 277-300.
- Schliesser, B., “‘Exegetical Amnesia’ and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The ‘Faith of Christ’ in Nineteenth-Century Pauline Scholarship”, *The Journal of Theological Studies* 66:1 (2015), 61-89.
- Schliesser, B., “Faith in Early Christianity”, Jörg Frey, B. Schliesser and Nadine Kessler, eds., *Glaube: Das Verständnis Des Glaubens Im Frühen Christentum und in Seiner Jüdischen und Hellenistisch-Römischen Umwelt*, Tübingen: Mohr Siebeck, 2017.
- Seifrid, M., “Roman Faith and Christian Faith”, *New Testament Studies* 64:2 (2018), 247-255.
- Smyth, H. W., and Messing, Gordon M., *Greek Grammar*, Rev. ed.,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6.
- Sprinkle, P. M.,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as an Eschatological Event”, Michael F. Bird and Preston M. Sprinkle, eds., *The Faith of Jesus Christ: Exegetical,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 165-184,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2010.
- Taylor, J. W., “From Faith to Faith: Romans 1.17 in the Light of Greek Idiom”, *New Testament Studies* 50 (2004), 337-348.
- Trebilco, P. R., *The Early Christians in Ephesus from Paul to Ignatius*, Grand Rapids: W. B. Eerdmans Pub. Co., 2007.
- Trebilco, P. R., *Self-Designations and Group Identity in the New Testament*,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 Wallace, D. B.,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An Exegetical Syntax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1996.
- Watson, F., “Roman Faith and Christian Faith”, *New Testament Studies* 64:2 (2018), 243-247.

<Abstract>

Paul's Understanding of Πίστις: Trust, Faith, or Obedience?
— Focusing on the Critique of T. Morgan's Understanding of Πίστις —

SeungHyun Lee
(Hoseo University)

Until now, the word πίστις and the various Greek expressions with it have drawn tremendous scholarly attention from Pauline scholars. They attempted to define the Greek term πίστις in Paul's usage from multiple angles. One of the recent attempts was done by a classicist Teresa Morgan. Morgan argued that Paul and NT writers based their use of the term πίστις upon its common social understanding of trust in relationship in 1CE. Responding to and independently from her, Pauline scholars produced books and articles to tackle Paul's understanding of πίστις. Joining this scholarly conversation regarding πίστις, we therefore would like to explore in this paper Paul's understanding of it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its threefold meanings, rejecting the simplistic tendency to define the term uniformly throughout the whole body of his letters. First, the term πίστις means the believers' positive acceptance of the salvation message in Jesus' Gospel on the basis of their cognitive change of its evaluation. In this sense, πίστις means faith in the truth claim of Jesus' Gospel, and reveals the believers' personal confidence in God's salvation accomplished by Jesus. Second, πίστις however means total trust in God, who initiated the salvation and accomplished it through his Son Jesus, and Jesus on the basis of their personal belief in the veracity of Jesus event. God proved his faithfulness toward his people by sending his Son to the world and sacrificing him. Through Jesus event transmitted by Paul's Gospel, that is, through Jesus' death and resurrection, the believers came to trust in the faithfulness of their God and their savior Jesus. And on the basis of their trust, they are able to enter into a new covenantal relationship with God. Finally, the believers' change of mind toward and positive acceptance of God's Gospel, and their trust in God and Jesus require them to show persistent obedience toward God. The πίστις in terms of continuous obedience becomes a new existential realm for the believers and a new life principle. The πίστις in this sense should continue to grow through

various life temptations and trials, and should govern their life as the life principle. In this way, the term πίστις for Paul is a very dynamic one with multiple implications in it. This means that when we interpret Paul, we should not reduce the term πίστις to just one meaning and thereby, limit the dynamics of Pauline theology. Our understanding of Paul will be made proper when we pay attention to particular implications of this term in various contexts of Paul's letters.